

차 례

머 리 말/ 2

◇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의 성격/ 4

◇ 「축전」유치 이유/ 8

◇ 「축전」준비 상황/11

◇ 주요행사 내용/19

◇ 행사참가시 제기되는 문제들/28

◇ 정부의 입장/43

맺 음 말/46



지난해 6.10, 8.15 두차례에 걸친 남북학생 회담 문제로 사회전체가 들끓은데 이어, 올해에도 7월 1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대한 우리측 학생들의 참가문제가 신년초부터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사실 이번 세계청년학생축전참가 문제를 둘러싼 통일논의는 지난해 학기말 대학가의 총학생회장 선거가 시작될 무렵인 11월 15일, 조선대 총학생회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당락에 관계없이 세계청년학생축전참가 성사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주장한 이후 중앙대, 이화여대, 서강대, 연세대, 경희대등 각 대학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들이 잇달아 이 행사에의 참가를 공약함으로써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다.

그러던중 '88년 12월 26일 북한의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원회」와 「조선학생위원회」가 김창용 「조선학생위원장」 명의로 우리측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으로 칭함)를 정식 초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全大協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동축전 문제는 내외의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이다.

북한측은 초청편지에서 “우리는 래년 7월초 평양에서 열리게 되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

전에 반제연대성, 평화와 친선을 지향하며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나라의 통일을 갈망하는 남녘의 애국적 청년학생들을 초청한다”고 밝힌뒤 초청에 따른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학생회담을 신년 3월초순경에 판문점에서 갖는 한편 회담대표단을 양측이 각각 9-11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이 초청에 대해 전대협의 중심조직인 서총련(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의 약칭)이 '88년 12월 30일자의 지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전대협도 89년 1월 20일 정명수 의장권한대행 명의로 북한측 「조선학생위원회」 김창용위원장앞으로 “평양축전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획기적 전기가 될것을 확신하며 축전참가 초청을 흔쾌히 수락한다”고 밝히는 답신을 남북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측에 전달토록 하였다.

이번의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우리 대학생의 참가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동행사의 성격, 내용 그리고 북한이 왜 전대협을 초청하였는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성을 느낀다.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성격

세계청년학생축전은 “사회주의나라 청년학생들과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 진보적 청년학생들의 단결된 역량을 시위하며 친선을 도모”(북한 발행 백과전서, 1983년판, P. 102)한다는 목적으로 소련의 영향력하에 있는 사회주의 전위조직인 「세계민주청년연맹」(WFDY : World Federation of Democratic Youth)과 「국제학생연맹」(IUS : International Union of Students)이 공동주관하는 국제적 반제투쟁(反帝鬪爭) 행사이다.

이 행사는 1947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에서 제1차 축전이 시작된 이래(71개국 1만 7천명 참가) 통상 2—6년 주기로 7.8월경에 대회 1만 7천~3만여명이 참가해왔으며, 지난 1985년 소련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던 제12차 축전에서는 참가단체국 수가 1백 57개국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표 1〉 역대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현황

회수	진행기간	장 소	참가 국수	참가인원
1 차	'47. 7. 26~8. 11	프라하(체코슬로바키아)	71	1만 7천명
2 차	'49. 8. 14~8. 24	부다페스트(헝가리)	82	2만명
3 차	'51. 8. 5~8. 19	베를린(동독)	104	2만 6천명
4 차	'53. 8. 2~8. 16	부쿠레시티(루마니아)	111	3만명
5 차	'55. 7. 31~8. 14	바르샤바(폴란드)	114	3만 1천명
6 차	'57. 7. 28~8. 11	모스크바(소련)	131	3만 4천명
7 차	'59. 7. 26~8. 4	비엔나(오스트리아)	112	1만 8천명
8 차	'62. 7. 29~8. 6	헬싱키(핀란드)	137	1만 8천명
9 차	'68. 7. 28~8. 6	소피아(불가리아)	138	2만명
10차	'73. 7. 28~8. 5	베를린(동독)	140	3만명
11차	'78. 7. 28~8. 5	아바나(쿠바)	145	1만 8천명
12차	'85. 7. 27~8. 3	모스크바(소련)	157	2만명
13차	'89. 7. 1~7. 8	평양(북한)	?	?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단위가 아닌 단체단위로 참가하는 이 축전은 제7차 오스트리아 비엔나 축전(1959년)과 제8차 핀란드 헬싱키 축전(196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최되어왔는데 아시아권에서는 이번의 「평양축전」이 처음이다.

이 축전에는 주로 공산권과 제3세계 및 일부 서방권 사회주의 학생·청년단체가 참가하여 정치토론회, 문화·예술공연, 전람회, 체육경기, 강연회, 친선모임등 각종 행사를 펼쳐왔으며 참가자 구성도 학생은 물론 노동자, 농민에서부터 군인, 예술인, 체육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각 부문별로 금·은·동메달을 수여하기는 하지만 경기나 경쟁력을 통한 스포츠·문화행사 보다는 사회주의 단체들의 친선을 도모하고 사회주의적 혁명의 연대성을 고취시키려는 정치성이 짙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정치성이 구체적으로 두드러진 것은 지난 1973년 동독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던 제10차 축전에서 “반제연대성,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정식 채택하고, 반핵,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반인종차별주의를 통한 군축과 세계평화의 실현을 투쟁목표로 제기하면서 부터였다.

이때부터 축전은 정치행사를 구체화·세부화시키는 반면, 예술·체육행사는 점차 간소화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던바, 특히 지난 1985년의 제12차 모스크바 축전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난다. 이 축전에서는 사상최대인 157개국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국주의의 강권정책을 반대하는 아시아나라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연대성 집회”,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선인민 및 청년학생들과의 연대성 집회”등의 정치 집회를 대대적으로 진행시킴으로써 축전의 정

치성을 여지없이 노출시켰던 것이다.

특히 이 축전에서 북한은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7월 29일의 「반제재판소 제1회 청문회」에서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군사화 정책과 그 결과”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자청, 한반도에서의 반미운동과 반한운동의 정당성을 대대적으로 선전·선동하기도 하였다.

〈세계민주청년연맹〉

「축전」을 공동주관하고 있는 「세계민주청년연맹」은 “국제 및 국내청년단체간의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공동문제의 해결과 민주주의, 우방 및 세계평화의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적으로 1945년 11월 10일, 63개국 청년대표 437명이 참가한 가운데 런던에서 설립되었다.

이후 “공산주의의 궁극적인 성취는 소련의 정치·군사적인 강화에 있다”는 레닌의 주장에 의거하여 본부를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두고 매년 집행위원회를 갖고 있는데 집행위원은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선출된다.

현재 1백 9개국의 2백 70개단체(회원 약 1억 명)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은 지난 1946년 6

월 24일에 가입하여 현재 부회장국으로 있으나 우리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국제학생연맹〉

공동주관단체인 「국제학생연맹」은 “세계 모든 인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제국주의 식민지 및 파시즘에 투쟁한다”는 목표아래 1946년 8월 48개국의 학생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에서 설립되어 현재 84개국 1백 18개 단체에 1천여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전세계 학생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학생회의, 구호활동, 장학금지급, 상호방문여행, 스포츠 교류 및 각종 문화행사 등의 실시로 친선을 도모하고 유대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와 총회기간중에 3회씩 집행위원회를 갖고 활동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49년 9월 15일 가입, 현재 부회장국으로 있으나 우리는 역시 가입하지 않고 있다.

「축전」유치 이유

북한이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평양유치

월 24일에 가입하여 현재 부회장국으로 있으나 우리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국제학생연맹〉

공동주관단체인 「국제학생연맹」은 “세계 모든 인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제국주의 식민지 및 파시즘에 투쟁한다”는 목표아래 1946년 8월 48개국의 학생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에서 설립되어 현재 84개국 1백 18개 단체에 1천여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전세계 학생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학생회의, 구호활동, 장학금지급, 상호방문여행, 스포츠 교류 및 각종 문화행사 등의 실시로 친선을 도모하고 유대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와 총회기간중에 3회씩 집행위원회를 갖고 활동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49년 9월 15일 가입, 현재 부회장국으로 있으나 우리는 역시 가입하지 않고 있다.

「축전」유치 이유

북한이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평양유치

에 상당한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력을 기울였고 또 유치후에도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리측의 올림픽 서울유치가 성공하자 이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이다.

북한은 올림픽개최 자체는 물론 올림픽으로 인해 확고해질 우리측의 국제적 지위상승과 이에 따른 북한의 상대적 고립, 대남열세, 내부동요 잠재력 증대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올림픽 개최를 방해하는 한편, 이에 버금가는 국제규모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저의는 이번 축전을 “아시아에서 최초”, “조선인민의 최대경사” “올림픽에 버금가는 행사”등으로 강조하면서 북한전역을 「전당·전국·전민」의 총동원 체제로 돌입, 정권창건 이래 최대규모의 행사로서 온갖 노력을 다 쏟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난다.

둘째로 축전을 최대의 정치선전장으로 삼음으로써 올림픽이후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의 대동구권 관계개선을 저지, 약화시키고 우리 사회내부의 안정을 방해, 교란시키려는데서도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축전의 유치과정에서는 물론 유치이후에도 끊임없이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철수, 군비축소, 핵무기 철거, 팀스피리트 훈련중지, 남한정부 타도 등을 대내외적으로 선전·선동해 오고 있는데서도 잘 알수 있다.

특히 서울올림픽이 북한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중·소를 비롯, 동구공산권 국가들마저 대거 참가, 사상 최다국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지고, 이의 직·간접적 파급영향으로 올림픽 이후 한·헝가리 국교관계 수립을 비롯하여 소련, 유고, 폴란드 등 동구권과의 무역사무소 개설합의, 중국과의 협력확대등 우리의 확고한 국제적지위 상승이 뚜렷해지자 축전과 관련한 해외홍보 및 외교활동에서 남한 비방활동을 더욱 대대적으로 펼침으로써 그들의 의도를 더욱 뚜렷이 하고 있다.

· 끝으로 축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대내적으로 김일성·김정일부자의 치적을 과시하고, 특히 이 행사를 김정일의 국제적 지도상과 확고한 후계자상 부각을 위한 결정적 계기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축전」 준비상황

북한은 1985년 7월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제 12차 세계청년학생축전 때부터 「축전」의 평양 유치 를 계획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갔다. 이를위해 북한은 1986년 7월 18일,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평양개최추진위원회를 공식 발기, 대규모 청년학생집회를 가진데 이어 8월 13일에는 「사회로동청년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8월 22일에는 평양에서 축전시설 건설을 위한 대대적인 군중대회를 열어 축전유치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북한은 또 작년 제24회 올림픽의 서울 개최를 저지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당시 서울의 발전된 각종 시설에 있었다는 판단과 국제대회의 유치를 위해서는 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경험에 비추어 축전을 위한 기초시설 확보의 일환으로 평양 만경대 구역, 안골의 종합체육촌 건설에 착수하는 등 체육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평양시가지 확장 및 미화 작업에 들어갔다.

대대적인 대회시설 개선 작업과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1987년 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국제준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축전의 평양유치가 최종확정되자 북한은 곧바로 동년 3월 3일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행사의 대내외적인 준비업무를 총괄케하였다.

축전기간은 '88년 5월 14-16일 인도뉴델리에서 사흘간 61개국 13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1989년 7월 1일-7월 8일로 하기로 확정하였으며, '88년 11월 27일에는 동독주관하에 동독 베를린에서 제3차회의가 열려 「축전국제준비위원회 상설회의」를 구성, 평양축전의 본격적인 준비를 뒷받침하였다.

현재 북한은 매월 첫주 월요일을 축전지원의 날로 정하고, “축전준비사업을 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돕기위한 사업과 전사회적인 축전분위기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사로청」 조직들에서 다그치는등 전사회역량을 총체적으로 동원, 평양축전에 대비하고 있다.

〈체 육 시 설〉

북한이 이처럼 대회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이번 축전을 통해 세계청년학생들에게 북한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특히 우리측 학생들의 참가를 유도하여 각종 시설들을 과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과 학생들의 대북 인식에 혼란을 야기함과 동시에 북한의 “사회주의 우월성”을 세계에 대대적으로 선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2백 60여개의 시설물을 신축 보수하고 1988년 9월에 국가적 사업으로 건설해오던 안골체육촌의 준공을 계기로 대략적인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1986년 2월에 착공하였던 안골체육촌은 2만 5천석의 주경기장인 안골 종합경기장을 비롯하여 탁구, 농구, 축구등 각종목별 9개의 체육관과 프레스센터, 체육인 식당, 피로회복관, 방송설비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총 부지면적 1백 75만 m^2 , 연 건축면적 26만 7천 m^2 , 총인원 5만 6백여명의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 규모의 시설이다.

또한 안골체육촌에 이어 대동강 능라도에는 수용인원 15만명 규모의 종합 경기장을, 양각도에는 5만명 수용능력의 주경기장과 야외 축구훈련장, 경보훈련장, 역기, 복싱, 레슬링경기등을 위한 실내훈련장을 건설하고 있다.

〈표 2〉 체 육 시 설

공 사 명	위 치	공 사 내 용	비 고
●안 골 체 육 촌	평 양 안 골	종합경기장 1개, 실내체 육관 9개	'88. 9.월 개촌식
●능 라 도 경 기 장	평 양 능 라 도	종합경기장(북한최대), 수용능력 15만명	공 사 중
●양 각 도 축 구 장	평 양 양 각 도	수용능력 3만명	공 사 중

〈평양시가지 정비 및 숙박시설〉

체육시설과 함께 평양에 길이 600m의 지하
쇼핑센타를 완공하고 서장동에 높이 1백 5층
(객실 3,000개)의 대규모 호텔과 양각도에 47
층(객실 2,000개)의 국제호텔 등 국제규모의
숙박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표 3〉 평양시가지 정비

공 사 명	위 치	공 사 내 용	비 고
광 복 거 리	평 양만 경 대	도로확장, 공공시설, 아 파트건설	공 사 중
북 세 거 리	평 양보 통 강	위락시설, 아파트건설	공 사 중
천 리 마 거 리 (2 단계)	평 양	공공시설, 아파트건설	공 사 중
지 하 상 집	평 양	지 하 쇼핑 센 타 (길이 600m)	완 공

〈표 4〉 숙박 시설

공사명	위치	공사내용	비고
105층 호 텔	평양서장동	객실 3,000개	공사중
양각도국제호텔	평양양각도	47층, 객실 2,000개	공사중
관광호텔	평양안골	규모 미상	88. 9 월 완공
안골여관	평양안골	20층, 객실 400개	88. 9 월 완공

〈문화시설 및 통신시설〉

문화시설로는 이미 완공된 학생소년궁전(연건평 6만 m^2)을 비롯하여 안골거리의 예술극장(연건평 5만 m^2), 동평양극장, 국제영화관, 청년극장 등을 꼽을 수 있다. 통신시설로는 인도양 위성망을 연결하는 국제위성통신 지국과 완공단계에 있는 연건평 1만 3천 m^2 에 이르는 국제통신센터등이 있는데 이들은 서울올림픽때의 메인프레스센터(MPC)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평양의 순안비행장 활주로 3.8km를 신설하는 등 항공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표 5〉 문화 시설

공사명	위치	공사내용	비고
청년극장	평양대동강구역	연건평 4만 6천 m^2	
동평양극장	평양문수거리	연건평 3만 m^2	
예술극장	평양안골거리	연건평 5만 m^2	
학생소년궁전	평양광복거리	연건평 6만 m^2	완공
국제영화관	평양양각도	연건평 3만 6천 m^2	

〈표 6〉 통신 시설

공 사 명	위 치	공 사 내 용	비 고
국제위성통신 자 국	평 양 사 동	연건평 3천 6백 평	인도양위성망
국제통신센터	평양보통강변	연건평 1만 3천 m ²	완 공 단 계

〈축전 선전물 제작·배포〉

축전준비위원회는 종합조직분과, 개·폐막분과, 문화예술분과, 보도분과 등 수십개의 분과별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회시설물들이 완공단계에 들어서면서 현재는 약 40종 32여만 부의 축전선전물(축전선전화, 화첩, 도서, 달력, 엽서 등)들을 세계 140여개국 5백 70여개 청년학생 단체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앞으로는 북한의 정치·경제·문화·역사·풍습등을 소개할 책자를 비롯해 평양안내도, 축전행사안내도, 북한의 주요도시와 명승지 및 문화유적·유물들을 소개하는 수십종의 화첩, 엽서, 입체사진 등을 계속 제작·배포할 계획으로 있다.

○「축전무대 형성도안」 현상공모

「축전준비위」는 평양축전 무대구성을 위한 축전무대형성도안을 현상공모, 우수작 30여점

을 선정하여 제작에 착수하는 한편, 1987년 3월부터 수공예품과 우편도안을 공모한 결과 수공예품 5백여점과 우표도안 2천여점이 출품되었고 이중 기념우표 6종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헤어스타일」 공모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우리 인민의 옷차림새를 현대적 미감과 정세에 맞게 보다 화려하고 다양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참가자의 의류와 신발류의 디자인과 헤어스타일을 현상 공모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단순한 차림새와 머리모양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고 있다.

○강상무대 설치

높이 2.5m, 폭 110m에 이르는 초대형 병풍을 제작하고 대동강의 옥류교와 대동교 사이에 길이 20m, 너비 117m의 강상무대 설치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올림픽때 처음으로 선보였던 한강에서의 「강상제」를 본받은 것으로 보인다.

○축전구호 · 상징마크 · 선전화

행사의 내용과 성격을 잘 표현해주는 축전의

구호로서 지난 1973년 제10차 동독베를린 축전에서 사용했던 “반제연대성,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를 다시 채택하고, 축전의 상징마크로 천리마, 봉화, 상모춤을 그리고 축전의 선전화로 5대륙을 상징하는 5개의 원에 비둘기를 그려넣고 햇불을 올린 그림을 선정하였다.

○축전 공식가요

축전의 공식가요로 「미래의 주인은 청년학생」, 「평양은 벗들을 환영한다」, 「어서오시라 평양으로」등 24곡의 축전가요를 선정, 번역출판을 추진하고 있다.

○기 타

축전행사에 쓰일 비둘기를 확보하기 위해 평양의 각 인민학교, 고등중학교에 다량의 비둘기를 배정, 사육하고 있고 이번 대회가 대규모 국제행사인 점을 감안, 언어의 벽을 줄이기 위해 노어, 영어, 불어, 서반아어, 독어 등의 통역요원 교육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 및 각국의 준비활동, 축전의 이념과 전통등 축전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는 월간지 「축전통보」의 발행과 함께 동구공산권 중심의 방송연맹인 OIRT(Organization Inter-

national Radio and Television)와 협의, 청년 학생축전의 보도를 준비하는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행사 내용

북한은 대대적인 대회시설물 준비와 함께 “반제연대성,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라는 축전 구호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축전의 주요행사는 크게 정치행사,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그리고 기타행사로 나눌 수 있다.

〈정 치 행 사〉

세계청년학생 축전준비위원장이 기자회견(1988년 10월 5일, 중앙방송)에서 “축전기간에 진행될 행사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정치행사”라고 특별히 밝힌데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이번 축전에서 북한이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정치행사이다.

북한측은 이번 정치행사는 “제국주의반대, 핵무기 없는 세계건설, 군축문제 등 현시기 국제정치무대에서 가장 민감하게 제기되고 있는

national Radio and Television)와 협의, 청년 학생축전의 보도를 준비하는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행사 내용

북한은 대대적인 대회시설물 준비와 함께 “반제연대성,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라는 축전 구호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축전의 주요행사는 크게 정치행사,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그리고 기타행사로 나눌 수 있다.

〈정 치 행 사〉

세계청년학생 축전준비위원장이 기자회견(1988년 10월 5일, 중앙방송)에서 “축전기간에 진행될 행사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정치행사”라고 특별히 밝힌데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이번 축전에서 북한이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정치행사이다.

북한측은 이번 정치행사는 “제국주의반대, 핵무기 없는 세계건설, 군축문제 등 현시기 국제정치무대에서 가장 민감하게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문제들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취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준비위는 군축반핵, 반제연대성, 비동맹, 새국제경제질서, 환경보호 및 신국제 통신질서, 인권 및 아동권리, 여성권리, 교육등 주요토론 주제별로 8개의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북한이 밝히고 있는 센터별 토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표 7〉 정치토론회 토론주제

구분	토론주제
제1센터	평화, 군축, 안전, 핵무기 없는 세계
제2센터	반제연대성, 민족적 해방·독립·자주, 사회적 진보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
제3센터	블럭불가담(비동맹)
제4센터	사회경제발전 및 개발을 위한 군축, 새국제경제질서, 대외채무
제5센터	자연 및 환경보호, 새국제공보 및 통신질서, 세계적문제 해결
제6센터	인권, 청년·학생 및 아동권리
제7센터	여성권리
제8센터	교육, 과학, 새기술

정치행사에는 또 특별행사도 마련,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범죄적 죄행을 폭로, 규탄하는 반제재판소와 국제연대성시장, 그리고 반유태 북고주의, 반인종격리, 반인종주의 재판소등을 운용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21세기와 관련, 축

전운동의 역할,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정세등을 취급하는 연단의 조직, 청년들의 관광 및 교류, 대학생·청년·아동·종교인들을 위한 회의·토론회·상봉모임, 전시회 등도 별도로 준비되고 있다.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행사는 세계청년학생들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으나 국제행사와 국내행사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국제행사로는 음악·무용·교예·영화·미술등 각부문별로 예술축전이 전개될 예정이며, 각국 민속단체공연, 국제민속놀이, 무도회 등도 준비되고 있다.

국내행사로는 대규모 북한예술인들의 대공연, 국립교향악단의 연주, 평양 교예단의 종합교예, 청소년들의 공연, 혁명가극 등과 함께 공예·미술작품전시회, 북한영화 감상회 등이 예정되고 있다.

주요 행사들은 다음과 같다.

〈표 8〉 문화예술 주요행사

행사명	장소	내용	비고
대공연 「행복의 노래」	2.8문화 회관 (6,000석)	○ 김일성, 김정일의 영도 력 및 북한 사회주의 발 전상 과시 ○ 축전 참가자들의 친선과 단결을 형상화	○ 5,000명의 북한에 슬인 출연
교향악의 밤	동평양 대극장 (2,000석)	○ 교향곡, 피아노 협주곡 및 기악곡등 연주	○ 국립교향악단 출 연
종합교예	광복거리 교예극장 (3,500석)	○ 공중교예, 조형교예, 손 재주교예, 수중교예, 빙 상교예, 동물교예 및 요 술공연	○ 평양교예단 출연
음악무용 종합공연	2.8문화 회관 (6,000석)	○ 혁명가극(“꽃파는 처 녀”) 혁명연극(“딸에게서 온 편지”) 가야금 협주곡(“옹해 야”) 등 공연	○ 조선인민군 협주단 출연
춘향전	동평양 대극장 (2,000석)	○ 민족 고전가극을 각색	○ 평양예술단 출연
대동강 배우이공연	대동강 야외부대	○ 유치원·어린이부대, 학 생·소년무대, 음악무용 무대, 화술부대, 민족가 부부대, 영화예술인부 대, 정음악 부대등 구분 공연	○ 대동강위에 길이 20m×폭17m의 각 종 무대 설치 ○ 축전참가자들이 대동강변에서 여 러가지 형태의 공 연무대를 한눈에 감상
학생소년 예 술소조 종합 공연	만경대학생 소년 궁전		○ 북한의 각도 학생소년예술소조 출연
유치원 이 름 이들의 종합 공연	만경대학생 소년 궁전		
공예, 미술작 품 전시회	대동강변 가설전시장	○ 북한의 공예품, 미술품, 출판화 등 2만여종 전시	
전국 청소년 미술전람회	2.8문화회관 (6,000석)		

〈체 육 행 사〉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은 세계진보적 청년학생들의 「친선·단결」의 의지와 「평양축전」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기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체육행사는 국제행사와 국내행사로 나눌 수 있는데 국제행사는 축구·농구·배구·탁구 등 수십개의 종목들이 국가간의 친선경기로 진행될 예정이며 각종 세계기록 보유자,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등의 시범경기도 준비중이다.

또한 평양 개선문과 김일성광장 사이의 구간 2,100m(21세기 상징)를 달리는 「평화로운 21세기로의 달리기」 경기와 평양-양각도에 축전 개최 연도인 1989년을 기념하는 1,989m의 구간을 설정하여 달리는 「평양축전 기념달리기」 경기도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경기들은 국가별 순위나 성적과는 무관한 시범경기, 친선체육대회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내행사로는 대동강에서 수상스키선수들의 시범공연과 뚝단배·행글라이더 공연등이, 김일성 광장에서 항공단 선수들의 「탑쌓기 낙하」, 「8선녀 낙하」, 「뱃줄변형낙하」 시범공연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기 타 행 사〉

「축전준비위」는 개·폐회식을 능라도 경기장에서 성대히 치를 예정으로 있는 데 여기서는 「축전손님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벗들이여, 평화를 위한 길에서 다시 만납시다」 등의 테마별 공연과 함께 카드섹션, 마스게임, 남녀취주악대 연주등이 진행된다.

축전행사 기간중에는 평양 대성산 유원지등에 국제민속놀이장을 설치하여 씨름, 그네뛰기, 윷놀이, 장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뽕줄넘기, 연날리기, 수건돌리기, 불놀이, 가면 놀이등의 민속놀이와 탈춤, 농악, 쟁강춤등 다양한 민속예술작품 공연을 펼친다. 국제 민속놀이 장에서는 이들 공연외에도 고려자기 등 도자기류, 돌공예, 나무공예, 철공예, 초문공예 등 공예품, 수예품을 전시 판매하고, 떡, 국수, 팔죽, 녹두지짐, 김치, 수정과, 식혜등의 갖가지 민속음식도 판매한다.

세계청년학생축전은 관례적으로 축전개최 7일째를 「개최국의 날」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번 축전에서도 북한은 그들의 국력과 혁명의 정당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조선의 날」을 준비하고 각부문별 일꾼들의 상봉, 5대륙청년학생들과의 집회, 연환외교, 대집단체조, 대공연,

친선야회 등 여러가지 다채로운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연대성집회”(김일성 광장), 각국 대표단의 평양시 참관 및 가정 방문, 각국 청년학생들과의 민속놀이, 예술공연 등이 「조선의 날」 행사에 함께 진행된다.

○축전 예비행사

북한은 '88.11.5-'89.4.30 기간에 걸쳐 평양을 비롯한 각도, 시, 군별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대비한 예비축전의 성격을 가진 청년학생들의 「민족대축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 축전 행사내용은 정치·예술·체육 및 경제축전으로 구분된다. 정치축전에서는 “주체의 혁명원칙고수”, “청소년의 문화 도덕적 품모”, “청년들을 민족제일주의로 무장” 등을 주제로 설정, 토론 및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체육축전에서는 「반제연대성, 평화와 친선컵」 쟁탈 청소년학생체육경기, 「1989, 평양축전 상」 쟁취를 위한 청년학생 이어달리기 대회가 진행되었다.

경제축전에서는 「제13차 평양축전 우승기」
 생취를 위한 청년기술혁신 및 물자생산경기,
 「평양축전 상」 생취를 위한 청년기술혁신 및
 상품전시회, 「도라지꽃상」 생취를 위한 내마을
 내직장 꾸리기 사회주의 경쟁, 「89행복 상」 생
 취를 위한 전국아동 솜씨전람회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양의 중앙방송은 전하고
 있다.

〈표 9〉 정치축전 주요행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토 론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모신 청년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대학생들의 과업 ○ 사업과 생활에서 주체의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청년들의 과업 ○ 평화, 군축,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임무 ○ 주체시대 청년들이 소유하여야 할 문화도덕적 풍모
청 년 연 단 (강 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은 우리 민족제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영웅이 되자 ○ 청년들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주인으로서 교양자, 안내자, 선진자로 튼튼히 준비하자
원 탁 회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및 환경보호와 청년학생들의 역할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에 대하여
문답식 학습경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위한 전국 대학생 및 고등중학교 학생청소년들의 외국어 회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안내자, 교양자, 선전자가 되기 위한 전국 근로청년들의 문답식 학습
경협 발표회	○친애하는 지도자 김일성동지를 따라 배우는 운동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대학생 집회	○반미자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대학생집회
반제재판 소	○미제의 죄행에 대하여 ○노○○ 괴뢰도당의 죄행에 대하여

〈표 10〉 기타축전 행사내용

구분	주요내용
예술축전	○청년예술축전, 학생소년예술축전, 민족명절놀이축전
체육축전	○「반제연대성, 평화와 친선컵」쟁탈 소년학생 체육경기대회 ○「1989-평양축전상」쟁취를 위한 청년학생 이어달리기
경제축전	○「제13차 평양축전 우승기」쟁취를 위한 상품 및 물자 생산 경기 ○「도라지꽃상」쟁취를 위한 내마을, 내직장 꾸리기 사회주의 경쟁 ○「평양축전상」쟁취를 위한 청년기술 혁신 및 상품 전시회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앞두고 진행되는 북한 청년학생중심의 민족대축전은 북한의 “청년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문화도덕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며 온나라에 축전분위기를 세우고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를 다그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88년 11월 3일자 중앙방송)고 밝힘으로써 이행사가 축전의 예행연습을 통하여 그들 청소년들의 통일전선 이탈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치, 사상 교양사업임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청년학생들을 “평양축전의 주인으로서 선전자, 교양자, 안내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새로운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는 근로자들과 청년들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적극 고무하며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위한 물질적 준비를 다그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행사 참가시 제기되는 문제들

〈왜 북한은 全大協을 초청했는가?〉

○북한이 밝히는 「축전」의 의의

북한은 지난 1988년 9월 23일 관영 중앙방송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앞두고 진행되는 북한 청년학생중심의 민족대축전은 북한의 “청년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문화도덕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며 온나라에 축전분위기를 세우고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를 다그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88년 11월 3일자 중앙방송)고 밝힘으로써 이행사가 축전의 예행연습을 통하여 그들 청소년들의 통일전선 이탈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치, 사상 교양사업임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청년학생들을 “평양축전의 주인으로서 선전자, 교양자, 안내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새로운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는 근로자들과 청년들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적극 고무하며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위한 물질적 준비를 다그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행사 참가시 제기되는 문제들

〈왜 북한은 全大協을 초청했는가?〉

○북한이 밝히는 「축전」의 의의

북한은 지난 1988년 9월 23일 관영 중앙방송

을 통해 “제13차 세계청년학생 축전은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대정치 축전”이라고 전제, 몇가지 측면에서 축전의 의의를 스스로 밝힌바 있다.

북한은 이번 축전의 의의가 첫째,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과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온세상에 널리 시위하게 된다는데 있다”함으로써 이 행사가 주민통합과 “사회주의 혁명위업” 완성을 향한 대내외적 선전·선동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로 북한은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연공 연복의 구호를 높이들고 남북접촉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 있는등 “남조선의 반미 자주적 통일기운이 새로운 양상을 띄고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 “축전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공화국 북반부에 마련된 경제적 위력과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더욱 똑똑히 알려 줄 수 있으며 조국통일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더욱 고무해주게 될것”이라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곧 북한의 이번 전대협 초청이 우리 사회내부의 연복·연공 움직임과 반미운동을 더

육 고무, 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이번 축전이 “미제국주의와 직접 대치하고 있고 전쟁의 위험성이 가장 짙은 우리나라의 수도에서 세계의 진보적 청년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전을 하게 되면 세계청년학생들을 반제·반전·평화옹호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더욱 광범히 떨쳐 나서도록 고무하며 그들 사이에 친선과 단결, 연대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금번 축전을 통하여 주한미군철수 문제등을 국제적으로 선전·선동함으로써 국제혁명역량 배양의 한 계기로 삼으려는데 그 속셈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全大協 초청의 배경

북한이 전대협을 초청한 것은 국내외적 상황 배경과 대남전략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은 최근 조성된 국제적 화해무드로부터 고립되어서는 안된다는 초조감을 갖고 있으며 동서 화해움직임을 타고있는 소련·중공 등으

로부터도 상당한 개방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평화공세를 펴게끔 작용하고 있는바,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제의, 경제인 초청등 최근 일련의 동시 다발적인 대남제의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전대협 초청은 이러한 동시다발적 제의들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 한다는데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북한이 축전에 전대협을 초청한 것은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나 교류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주관하는 사회주의 정치행사에 우리측의 일개 학생단체를 대남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이 대회에의 명칭은 「사회주의 청년학생 축전」이었으나, 우리측을 의식, 「사회주의」라는 말을 삭제하였다. 하지만 축전내용에 있어서는 역대 어느 대회때보다도 정치성이 짙으며 또 북한스스로도 공공연히 정치행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사회주의 대회에 전대협을 초청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그동안 남북학생회담 투쟁, 반미·반핵투쟁, 공동올림

픽 투쟁과 함께 반정부활동을 전개해온 전대협을 대남비방의 선전장에 끌어들이므로써 대외적으로 그들 통일정책의 정당성과 지지기반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남한 내부의 국론분열을 획책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8월 17일 관영 평양방송을 통해 “이번 축전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반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을 크게 고무할 것”이라고 주장한데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축전참가에 따른 실무협의를 위한 학생회답을 정부가 아니라 전대협에 바로 제의해 온 것도 대표단 구성에 있어 6.10, 8.15 남북학생회답 주장때처럼 우리 측 정부나 대학당국을 배제하고 전대협과 직접 연대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렇듯 이번 제의는 최근 일련의 대남제의 등으로 중·소동의 개방정책에 화답하는 한편, 우리 사회내부에서의 좌우갈등, 정부와 운동권사이의 대립을 야기, 심화시키려는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全大協의 입장〉

지난해 두차례에 걸친 남북학생회담 추진으로 통일논의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전대협은 올해에도 통일운동을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연장선상에 놓고 있다.

특히 전대협은 최근들어 대공산권 해빙무드가 고조되는 대내외적 여건으로 볼 때 올해에는 어떤 형태로든 실질적인 남북학생 교류의 가능성이 클것으로 보고 교류 자체 실현보다는 통일운동의 국민대중적 지지기반확보, 자주·민주·통일의 삼위일체적 투쟁에 통일운동의 기본방침을 두고 있다. 이는 전대협 의장대행 정명수군이 올해의 통일운동방향과 관련, “올해의 통일운동은 통일방안의 실체화 및 긴장완화의 가시화라는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며 이는 결국 반미자주화·반독재민주화 투쟁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밝힌데서도 잘 알수 있다.

이에 따라 전대협은 평양축전참가를 올 상반기 운동의 최대과제로 설정하고 단순한 참가실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주한미군철수, 핵무기 철거,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남북교차승인 반대, 현정권 퇴진, 반독재투쟁 등의 문제들을

이슈화, 연계시킴으로써 「반외세·반독재·통일」의 3대 운동논리를 일반 국민들에게 확산시킬 매개체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올해 통일운동의 방침을 이렇게 정한 전대협은 평양행 자체가 통일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평양축전이 내세우고 있는 「반제연대성·평화·친선」이라는 슬로건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이는 전대협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서총련이 지난 12월 30일자 성명에서 “반제 연대성·평화·친선이라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이념적 가치에 서총련은 쌍수를 들어 지지, 환영”한다고 표명한데서도 잘 알수 있다.

또한 「조선학생위원회」의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초청서와 이에대한 서총련의 지지성명서는 전체적으로 축전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기여할 것이며, 통일의 장애요소로서의 미제와 남한정부, 통일운동의 핵심고리로서의 반미운동, 통일과 남북대화의 선결조건으로서 평화보장, 「반제연대성」의 정당성인식등의 구체적 이슈들에 대해서 상호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축전에서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반제연대성·평화·친선」구호와 전대협의

「자주·민주·통일」 주장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반미, 반공정책철폐, 사상·제도·체제를 초월한 연공·연북합작 논리로 동일하게 귀착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대협은 평양축전의 슬로건과 축전에의 확고한 참가방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데는 망설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전대협은 그동안 전혀 생소한 세계청년학생축전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이 축전에 북한측이 전대협을 초청한 의도와 이유등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절대 부족하여 고심하고 있다.

전대협이 '89년 1월 20일 북한측에 보낸 답신에서 “축전참가 초청을 흔쾌히 수락한다”고 「참가표명 의사」는 밝히면서도 북한측에 대해 “과거에 열린 역대 세계청년학생 축전과 평양축전의 세부적 준비 상황등에 관한 소상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사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또한 축전참가시 북한측이 채택을 강행할 것이 확실시되는 공동선언문에 대한 기본입장 정리가 현재로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공동선언문 채택과정에서 북한측이 내놓

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려연방제 실시, 주한미군철수 문제등 극도로 미묘한 정치, 군사문제들에 대해 전대협이 취해야 할 입장 정리가 쉽지 않아 크게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문제들은 그동안 전대협도 끊임없이 제기해온 것들이지만 이번에 북한측과 공동보조를 취할 경우 자유민주체제 수호의식이 두드러진 우리사회의 성격상 일반 국민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80년대 중반이후 학생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등장한 「대중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문제와 관련하여 전대협은 고려연방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주한 미군철수, 핵무기 철폐등의 문제도 국민여론을 의식, 최대한으로 완화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7.4남북공동선언문」에서 약간 발전되는 정도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으나 아직 내부에서조차 공식논의된 바 없다.

이밖에도 북한측의 고려연방제에 대응해 제시할 통일방안 추진문제, 평양축전 프로그램에 한민족 청년대회를 추가하는 문제, 체육행사에서의 공동선수단 선발문제, 북한학생들의 답례방문초청과 정기 학생교류문제등의 문제도 시

급한 과제이나 이 역시 그 구체적인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대협은 또 실무적 차원에서도 집행부(제2부)가 교체기에 있는 현상황에서는 축전문제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다루기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 1월 20일의 답신에서 축전참가를 위한 실무회담 및 대표단 구성에 관해서는 “2월 중으로 구성되는 제2기 전대협에서 구체적 시기와 장소, 방법등에 대해 추후 통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대협은 관련문제를 2월 2일 서총련 임시총회에서 본격 논의하고 신임 집행부가 출범하는 2월 중순쯤 준비위를 발족시킨 뒤 3월 판문점 남북학생회담에 응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대협은 축전관련문제를 2월 2일 서총련 임시총회에서 논의 한바 있다. 이 임시총회에서는 “축전 참가를 위한 투쟁의 의의, 축전 참가 투쟁의 기본원칙과 방도 그리고 축전에 전대협은 어떻게 참가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임시총회에서 구체적 방도는 대중적 지혜를 모아 「북조선국가준비위원회」와 협의할 것으로만 알려졌을 뿐 더이상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임시총회에서 구체적으로 토의를 진행시키지 못했던 것은 평양축전에 관

한 소상한 자료가 없는것도 문제였겠지만 동시에 전대협의 평양축전 참가라는 것이 참가보다는 국민의 호응과 관련, 축전참가 준비과정을 우리 사회내부에서 전대협의 위상과 세력팽창의 투쟁과정으로 의의를 부여하고자 하는데서 오는 한계점과 연결되어지며, 중국에 가서는 「전총련」(「전국학생대표자 총연합회」의 약칭) 건설의 실질적 토대 마련”과 맞물려 있는 등 전대협 목표의 이중성에서 오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대협은 축전과 관련하여 지난 1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남북학생교류를 위한 민간 협의기구에 대해서는 “협의기구가 자문역할을 넘어서 결정권을 갖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결정은 전대협이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각계 각층의 자문을 얻어 전대협이 독자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입장표명후 1월 19일에는 전대협의장 대행등 학생대표 2인이 북한측에 보낼 답신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국토통일원을 방문하고 20일에는 답신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 북한측에 전해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앞으로 실무적 차원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와의 협의가 있을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김집 체육부장관의 평양축전중 체육 행사만의 부분참가 및 참가단의 명칭문제 발언에 대해서는 “평양축전 참가는 전대협의 이름으로 해야하며 정치·문화·체육행사 가운데 체육행사에만 부분 참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고려할 수 없다”고 주장, 참가단 명칭의 「전대협」 고수와 부분참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2월의 서총련 임시대회에서도 이를 재확인 하였다.

특히 상당수의 학생들이 별로 설득력도 없으며 대중성 일탈이라는 위험성부담마저 높은 평양축전참가 문제로 소모전을 펴지 말고, 「5공비리 척결」, 「광주민주화 운동」 등의 중요한 문제들을 이슈화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강력하게 대두시키고 있는바, 이는 앞으로 축전과 관련,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축전 참가시 제기되는 문제들〉

이번 전대협의 평양행이 최초의 남북학생교류라는 실로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음에도 쉽게 응할 수 없는데에는 축전의 성격상 축전참가 「자체」에도 중대한 의미와 위험성이,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평양축전이 단순한 카니발이나 축제·친교행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세계 각국의 사회주의 단체들이 모여 반제연대성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정치행사로써 전대협이 축전에 참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대협은 논리상 사회주의 단체로 간주된다.

축전의 「사회주의」 성격과 함께 또다른 문제는 이번 축전과정에서 북한측이 남한학생들의 반미투쟁을 성원하는 집회와 남한 당국을 상대로한 모의재판 프로그램도 진행시키겠다고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어 전대협의 참가는 북한의 반한혁명 논리에 따르는 집회에 참가하는 남한 최초의 단체로 공인되는 셈이 된다는 점이다.

북한은 작년 11월 3일 중앙방송을 통해 “이번 축전에서는 반미자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대학생 집회와 미제·노○○ 일당의 죄행을 역사적으로 단죄하는 반제 재판소가 특색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밝힘으로써 평양축전이 반미는 물론 반정부적 체제부정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실무적 측면에서 전대협의 「대표성」에도 문제의 여지가 많다.

북한이 많은 남한내의 학생단체들 가운데 이

번 축전과 관련, 초청장을 보낸 단체는 분명히 전대협이다.

그러나 전대협이 평양측으로부터 받은 초청장 하나만으로 대표성을 주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절차상의 문제에서도 이번 전대협이 받은 편지는 발신인이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원회」와 「조선학생위원회」로서 개최국 단체의 명의로 되어있는 바, 이는 국제조직의 상설기구가 초청장을 보내는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번 축전과 같은 국제대회는 마치 올림픽때 IOC가 참가초청을 주관하는 것처럼 개최국이 아니라 국제조직에서 초청하는 것이 통상관례이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초청장은 단순한 참가지정 단체로서의 전대협 초청이라기 보다는 전대협에게 남한학생 참가단을 선발하는 준비단체로서의 역할을 의뢰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이와관련 혹자는 이번의 초청장은 남북학생 공동참가단 구성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전대협의 대표성 문제와 함께 참가단의 성격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 중에는 또 이번 축전의 남북공동주최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경우 축전을 총괄하는 「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원회」 산하에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와 남한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같은 위치에서 사회주의 정권을 고무하는 대회를 공식 주최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될때 전대협은 남한의 학생 대표단이 아니라 「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원회」에 종속되는 모양이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체제밖의 존재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위험성을 안게 된다.

이같은 점들을 미루어 볼 때 공동주최 또는 정식참가단보다는 「참관단」이나 「옵저버」 정도의 자격으로 한정하는 문제도 심각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참관단의 자격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우리측 학생대표단이 앞서 언급했듯이 「축전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회주의단체」화 되는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해 줄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대협은 한시적 대표단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노선의 차가 분명한 분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형식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축전을 준비하는 「세계민주청년연맹」과 「국제학생연맹」의 회원국도 아니며 축전에 참가한 경험도 전혀없을 뿐만 아니라 행사의 성격상 너무도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 현상태에서 아무리 남북교류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하더라도 첫경험의 북한행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입장

북한의 전대협 초청과 관련하여 정부는 참가 대상이 국가단위가 아니라 단체단위인 축전의 성격상 참가문제는 초청을 받은 당사자인 전대협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에서 그 수락여부 결정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 그러나 전대협의 축전참가 방침이 확고해지자 축전참가에 따른 제반 문제점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단은 기존의 도식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남북 인적 교류의 차원에서 통일기반 조성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점에서 그 형식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축전을 준비하는 「세계민주청년연맹」과 「국제학생연맹」의 회원국도 아니며 축전에 참가한 경험도 전혀없을 뿐만 아니라 행사의 성격상 너무도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 현상태에서 아무리 남북교류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하더라도 첫경험의 북한행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입장

북한의 전대협 초청과 관련하여 정부는 참가 대상이 국가단위가 아니라 단체단위인 축전의 성격상 참가문제는 초청을 받은 당사자인 전대협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에서 그 수락여부 결정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 그러나 전대협의 축전참가 방침이 확고해지자 축전참가에 따른 제반 문제점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단은 기존의 도식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남북 인적 교류의 차원에서 통일기반 조성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의 축전참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홍구 국토통일원 장관이 '89년 1월 6일 동아일보 대담에서, 이번 평양축전이 사회주의 청년학생단체들에 의한 정치적 행사라는 행사의 성격과 그 초청대상을 전한국 학생이 아니라 전대협이라는 특정단체를 지정했다는 점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지만, “북한도 우리 땅인데 어떤 특정이념을 가졌다는 이유로 여행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표명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1월 12일 정원식 문교부장관이 남북학생교류를 위한 민간협약기구 발족을 제안한데 이어 1월 17일에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노태우대통령이 평양축전문제와 관련 “반제 국제공산주의운동 선언을 결의하는 성격의 집회라는 것이 명백하지만 남북간에 어떤 형태 어떤 분야이든 교류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 이를 학생교류 성사의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힘으로써 축전참가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야권에서도 축전참가를 북의 실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서, 그리고 남북교류의 기회로서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학생들 또한 일반 국

민의 우려를 씻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축전에의 전향적인 태도는 불필요한 비판의 불식과 함께 대북한 개방정책을 포함한 현정부의 북방정책 의지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다.

사실 정부는 지난해에 남북학생회담문제 등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무분별한 판문점행을 저지함으로써 남북학생들간의 교류를 막으려는 “통일의지가 없는 정권”이라는 비난과 함께 대학내 운동권으로 하여금 투쟁의 중심을 반정부 운동으로 방향전환케하는 계기마련의 결과를 초래했던 경험이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북방외교와 남북교류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대협의 평양행을 봉쇄할 경우 북한측의 비난의 표적이 되리라는 점도 예상하기가 어렵지 않다.

정부는 이번 평양축전 참가문제와 관련, 민간차원의 「남북학생교류추진위원회」를 1월 31일 중에 발족시켰다.

이 민간협의 기구는 교류의 대상이 학생신분임을 감안, 교육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스승 또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지도하는 형식을 취했다. 협의기구 발족을 국토

통일원이 아닌 문교부에서 맡은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다.

민간차원의 이 협의기구에는 앞으로 평양축전 문제는 물론 남북학생 조국순례대행진 추진 문제, 남북학생 친선체육경기대회 교환 개최문제를 포함, 남북 쌍방이 주최하는 주요 학생행사 및 기타 정기적인 남북학생 교류문제 등 까지도 추진하는 상설기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도 하고 있다.

남북간의 교섭과 교류는 그 영역이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군사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체육적인 것이든 혹은 학생회담 차원의 것이든 그것이 민족공동체임을 확인하고 통일에의 의지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환영할 일이다.

만나서 토의하고 협의하고 교섭과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나 신뢰의 증진은 곧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통일을 향한 제1차적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남북국회회담등 남북접촉이 진행중에 있고 우리의 경제인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간의 인적교류도 그것이 어차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벽을 넘나드는 형태일 수 밖

에 없다는 점에서 남북학생간의 교류를 막을 하등의 이유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학생교류는 국토순례, 학술토론, 고적답사, 친선대회 등 순수학생 교류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적 성격의 회담은 남북국회 회담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일단은 정치인들에게 맡기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교류는 많을수록 좋고 창구도 여러갈래 일수록 좋지만 백가쟁명식의 무질서와 혼란은 아무런 결실도 없이 민족 역량만 낭비하고 남북교류의 실타래만 헝클어 트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에 우리측 학생들의 평양축전 참가문제가 남북한간의 제도와 사상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통일의지를 시험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전향적으로 대처하고자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이번의 축전은 지난해의 6.10, 8.15 남북학생회담 문제와는 달리 각국의 사회주의 단체들이 모이는 정치행사이니만큼 지난해 보였던 과격성과 일방적인 대표성 주장보다 교섭과 교류행위 자체가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자세로 국민적 합의와 협의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가슴은 뜨겁게 그러나 머리는 차갑게!” 바야흐로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민족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접근방법과 자기가 서야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찾기 위해서 꼼꼼히 되새겨야 할 말이다.